

“생각이 현실이 된다.”

전기관련업종 최연소 CEO 인터뷰 ...

취재 | 제도연구실 손영선



▲ (주)다우텍 대표이사 양 준 민(No. 118603)

Q 회원님께서 전기관련업종(설계·감리·대행) 중에 최연소 CEO로 알고 있습니다. 20대에 경영자의 길을 선택하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처음부터 20대에 경영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빨리 제 꿈이 현실로 이루어 질 수 있는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를 전역하자마자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전기설계·감리업체가 아닌 건설업체에 입사하여 사무 보조부터 현장기술, 건축설계 등 3년 넘게 밑바닥부터 온몸으로 경험하며 배워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눈치밥도 많이 먹고 여러 어려움도 겪었지만, 오직 제 꿈을 이루기 위한 단념하나라 버텼고, 그 시간이 제게는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후 3년이 지나서야 아버지의 회사인 다우텍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자칫 아버지가 대표여서 남들보다 편하게 근무할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또다시 아래서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직원으로 아니 더 무섭게 절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길을 잃고 방향도 했지만, 열정을 다해 회사를 위해 배우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3~4년이 지난 해 제가 29살 때 대표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대표님은 '현장을 뛰는 기술사'로 저는 '현장을 뛰는 경영자'가 되고 싶다고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이 제 의견을 존중하여 주셨고 제게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역경과 고난도 겪겠지만, 제 “젊음의 패기와 열정”을 회사를 위해 받칠 것이며, 합리적인 리더로 좋은 경영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Q 회원님께서 여러 전기분야중 전기설계·감리분야를 선택하게 된 계기와 업체 운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Interview

A 무엇보다 아버지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어릴적부터 전기기술자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저로써, 다른 분야보다는 전기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당시 전기 설계·감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던 아버지의 업무에 대한 열정은 어느 순간 저에게도 그 일에 대한 동경과 꿈을 심어 주었고 저의 미래를 맡기게 된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 확고한 저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전기학과로 대학을 진학하였으며, 다우텍에 들어와서는 전기설계·감리 및 통신분야의 기술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를 하여 2년도 채 안되어서 전기공사산업 기사를 비롯해 소방설비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밑부터 배우자는 신념 하나로 사무보조업무부터 행정에서 계약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발로 뛰는 열정과 근성을 보여준 것이 제게 경영권을 준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Q 전기관련업종의 신세대 CEO로써 어려웠던 점과 이를 극복하신 노하우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사실 제가 현장에 가서 대표라고 하면 대부분 믿지 않습니다. 명함을 보여드려도 고개부터 가우뚱하시는데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나이 좀 들어 보일려고 정장도 입어보긴 했지만, 그건 어설픈 흉내인 것 같았고 차라리 어울리지 않은 정장보다는 더 신세대적으로 어필하고자 케쥬얼과 독특한 헤어스타일로 이미지를 메이킹하여 저를 알렸으며 회사를 알리는데 힘썼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리다는 이유로 사회적 편견과 불편한 시선 등 많은 어려움 등으로 진땀을 뺀게 한 두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때마다 더 오기가 생겼습니다. 어리다고 할 수 없단 생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저 또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만이 성공하는 열쇠란 말이 있듯이 노력만이 우뚝 설수 있단 생각으로 앞으로 제 꿈을 위해 한걸음씩 노력해 나아갈 생각입니다.

Q 신세대 CEO로써 강점과 자신만의 특별한 리더십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제가 아직은 젊어서인지 ‘도전적인 정신’이 강합니다. 실패가 두려워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도전이라는 또 다른 희망에 제 자신을 걸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은 실패를 미리 두려워 피하는 것 보다는 맞서 도전하는 정신이 제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우리 회사는 한전용역을 중점으로 하다 보니 직원분들의 나이가 평균 60세가 넘습니다. 경력이 많으신 선배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이 제게는 큰 영광이며 장점입니다. 선배님들의 오랜 노하우로 제게 부족한 점을 많이 배울 수 있으며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격려가 제게 든든한 지킴목이 됩니다.

제게 리더십이라 하면, 선배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받쳐주는 일이 제 역할이 생각됩니다.

Q 마지막으로 인생의 좌우명과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A 제 좌우명은 “생각이 현실이 된다.”입니다. 생각만이 아닌 현실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속 추진한다면 그 생각이 현실에 가까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또한 인생의 스케치로 그려던 20대쯤의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행복한 가정, 그리고 사업가로서의 꿈이 그려졌습니다. 앞으로의 30대, 40대, 50대의 제 멋진 인생을 위해 설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업역 확장을 위해서 전문분야의 노하우와 다양한 기술력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계획이며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라면 누구나 최고 자격인 기술사 자격취득에 목표를 갖기 마련인데 저희 아버지께서도 발송배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전기철도 기술사를 취득하셨는데 하나도 취득하기 어려운 자격을 3개나 가지고 계십니다. 저 또한 이에 버금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을 목표로 하나씩 취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